

특별기고



정 기 연
주필

효심을 기르는 추석 명절

면 언제 할 것인가? 추석이 되면 귀향하는 사람들로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속도로가 차량 행렬로 막혀 평소보다 3~4배의 시간을 소비해서 귀향하고 있다.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 민족은 대부분 조상의 고향이 농촌이고 농촌에서 자라고 성장해 산업사회가 되면서 도시로 진출해 살고 있다.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에 계신 노부모를 만나고 조상의 묘소에 성묘하려고 귀향하고 있고 고향에서 일가친척을 만나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전래풍습에 의한 추석의 전통 놀이를 고향에서 즐기기도 한다. 농경문화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농사는 농부의 노력도 중요 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해야 하고 이러한 일을 도와주시는 것이 조상이며 하느님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추석날은 새로 거둔 햅쌀과 햅과일로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풍속이다.

기독교 문화가 전래하면서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는데 전통적인 우리의 풍속은 추석날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 추석이다. 추석 명절은 우리의 전통적인 효 문화의 큰 맥을 이루는 행사다. 추석날이

되기 전에 조상의 묘소에 별초하고 차례상 차리기 위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차례상에 올릴 과일이나 생선은 가장 좋은 것을 보관했다가 제상에 올리게 된다. 따라서 제사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효심에서 우러난 정성이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사음식은 차례를 지낸 후 자손들이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며 같이 먹는다. 추석(秋夕)의 유래는 신라 시대 길쌈놀이인 가배란 벌침에서 유래한 것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가위를 뿔뿔이 찢어놓는 것으로 변했고 예기(禮記)의 춘소월(春朔月) 秋夕月(秋夕月) 봄엔 아침달, 가을엔 저녁 달에서 추석이란 말이 나왔다고 하고, 가을의 한가운데라고 해서 중추(中秋)요, 가을이 한창때 명절이라고 해서 중추佳節(仲秋佳節)이라고 한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옛말로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로 설과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의 하나로서 농경문화의 사회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었다.

올해의 농사는 카누 태풍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보았다. 고향으로의 민족 대 이동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지나온 우리 과거가 전쟁과 가난, 산업화로 말미암아 노동력 인구가 삶을 개척하기 위해 고향을 등졌기 때문일 것이며 타

향살이가 고달플수록, 고향을 떠나올 때의 설움이 깊을수록 망향의 한이 사무쳐, 길가에서 한나절을 부대끼며 낱밤을 새우더라도 귀성 대열에 끼여 탐욕의 고향을 향해 귀향길의 고생을 감수하고 있다.

연어 때가 사력을 다해 태어난 곳을 찾아 이동하는 모천회귀(母川回歸)처럼 인간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다.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인 고향에 대한 향수(鄉愁)본능이다. 추석 때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향을 찾는 효심의 이동이며, 즐거움의 이동이며, 애향심의 이동이며, 활력을 충전하기 위한 이동이다.

추석 명절 때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도 부모와 조상이 있고 일가친척이 있으며 고향이 있음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부모 조상과 고향에 대한 할 일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는, 효심과 애향심을 기르는 추석 한가위 명절이 돼야 한다.

고향에 갈 때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고향에서 얻은 물질 심적인 선물을 가득 안고 다시 일터로 향하는 귀경길에 오르게 된다. 추석 명절은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 민족에게 효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고 활력을 충전해주는 명절로써, 다른 민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명절로 자리를 잡아 더욱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독자기고

이번 추석 연휴에는 농촌에서 하루 더 어떠세요

송 민 형
농협구례교육원 교수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이번 추석 연휴는 6일 간으로 모처럼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됐다. 예로부터 추석, 순 우리말로 한가위는 음력 8월의 한 가운데를 뜻하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이다. 빛나는 황금 들판과 주렁주렁 열려있는 과실이 연상되는 이 수확의 계절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친지들과 만나 '정'을 나누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계절의 풍요로움을 나눈다.

한 여행 기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2명은 '올해 추석 연휴에는 해외보다는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와 마을에서도 오랜만에 고향과 농촌을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체험프로그램 등 각종 콘텐츠를 준비해 손님 맞이에 힘쓰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만 알아보더라도 고되고 무료하다고 여겨지는 귀향 일정에서 벗어나 알차고 재밌는 시간을 계획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았으

면 하는 가치가 있다. 바로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이다. 연이어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 소식들은 우리들로 해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 됐다'라는 생각을 쉽게 떠올리게 만들었다. '함께'를 느끼게 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명절이다. 한가위하면 연상되는 강강술래, 송편 빚기 등 명절에 즐기는 이 놀이들은 모두 함께하는 성질의 것이며 함께해야 즐거운 것이다. 이러한 소소한 놀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고향과 단절 보다는 만남과 어울림이 더 즐겁고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함께'에서 오는 재미와 의미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명절에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 없는 이 시간은 의외로 우리 서로 간의 연결을 확인시켜 주고 긍정적인 경험과 기억을 남겨 사회적 관계를 튼튼하게 하고 심리적 안정을 심어주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연휴에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도시에서의 삶을 잠시 내려두고 시원한 바람 살랑살랑 부는 편안한 농촌에서 가족과 친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올해 한가위가 독자 모두에게 '함께'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그린피브로디엠아이

파브로인추출물BF-7, 루테인, EPA 및 DHA 함유유지

그린알로에